

# 風水, 氣, 몸 補身

풍수지리설과 같은 의사(擬似)과학이 우리사회에 범람하고 있다. 돈푼이나 있는 사람치고 명당자리 가족묘지터를 사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며 김일성이 조상묘탕에 죽었다는 풍수지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또한 몸 보신과 양기(陽氣)에 좋다면 물불을 안가리는 것이 현 세태다. 우리사회와 문화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 핏 듣기에 ‘과학’인 것같지만 과학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의사(擬似)과학’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다. 정도가 지나쳐서 신흥 종교와도 같은 열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풍수지리설’을 예로 들 수 있다. 돈푼이나 있는 사람치고 명당자리 가족 묘지터를 사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그만큼 ‘믿음’이 광범하다.

## 열병 앓는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93년에서 94년에 걸쳐 세상을 뒤흔든 적이 있었다. 군사정권의 누구는 처가집 어른의 무덤덕분에 권세를 잡았고, 김일성의 조상 무덤을 보니 김일성이 곧 죽겠다더라는 화제가 떠들썩했다. 정말 김일성이 죽자 문제의 풍수지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어서 풍수지리설이 과학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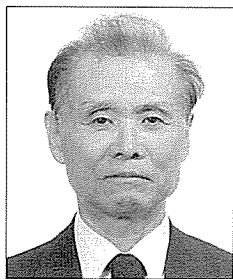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의 기본법칙은 ‘좌청룡·우백호에 주산(主山)·안산(案山) 그리고 명당’의 지형배치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인 이 땅에서 혼

히 볼 수 있는 지형이다. 고려 5백년, 조선 5백년의 역대 임금과 친족들이 모두 그런 지형배치 속에 묻혔다. 그러나 두 왕조 모두 이제는 역사의 과거사(過去事)가 됐다. 18세기 전반, 영조때 도암 이재(陶菴 李紱)는 정자(程子)의 경고를 인용했다. “묘지를 구하는 것은 지질의 좋고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요, 음양가(陰陽家)가 말하는 화복(禍福)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상의 무덤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면 터무니없는 미신이요, 낯뜨거운 이기주의일 뿐이다.

풍수지리설처럼 인기가 있는 것이 ‘기(氣)’다. 바다처럼 넓은 대형서점에 가면 ‘기’를 다룬 책만 꽂아 놓은 코너가 따로 독립돼 있을 정도다. ‘기’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법칙적으로 인식해가는 초기단계에서 개념화한 신비스런 ‘그 무엇’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물리학의 ‘에너지’나, 철학적 인식의 객체와는 다른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보자. 도가(道家)나 선가(仙家)는 ‘호흡법’이라는 수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몸 안의 ‘기’를 조절한다는 뜻에서 ‘행기(行氣)’라고도 말한다.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토고납신(吐故納新)’이라든가, “성인(聖人)은 음양의 기를 호흡한다.”고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진인(真人=仙人)은 숨이 길고 깊어 목구멍이 아닌 발꿈치로부터 쐬다”는 말이 「장자(莊子)」라는 고전에 보인다. 또 “선약(仙藥)을 얻지 못하면 호흡법(行氣)만으로도 수백세의 수(壽)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抱朴子)



鄭璟喜  
(언론인)

## 낮뜨거운 몸 보신, 陽氣

지금 이 나라 최대의 '의사과학'은 뭐니뭐니해도 '몸 보신'과 '양기(陽氣)'다. 몸 보신의 광신자요, 낮뜨겁게도 양기타령의 광신자인 한국인은 세계 사슴뿔(녹용)수출시장에서 80%를 '독점 수입'해 오고 있다. 또 세계에서 밀려드는 곰의 종착점은 그 80%가 한국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쓸개 빠진'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곰쓸개라면 가짜라도 신주단지처럼 받들어 모시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에는 만병통치학의 맹신도가 많다. 산과 들에서 뱀을 싸뜩이하다시피 하더니, 중국에서 산더미처럼 뱀을 밀수입해 오고, 오소리에서 까마귀에 이르기까지 야생동물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세계 최대의 육식동물이 한국인이다. 심지어 전설적 흡혈귀 드라큘라처럼 노루같은 동물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몸 보신파도 많다.

외국에서는 슈퍼에서 파는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서 무더기로 들어오는 넌센스도 벌어지고 있다. 신비의 만병통치약에 대한 신앙도 그 옛날 신선도의 불로장생술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잊혀져 가는 민속처럼 됐지만 솔잎이 신비스런 몸 보신 효험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뿌리는 신선도다.

예를 들어 중국 진(秦)나라 시황(始皇)의 궁녀였던 모녀(毛女)는 진나라가 망한 뒤 화음(華陰)의 산 속으로 피난갔다. 그는 곡춘(谷春)이라는 도사(道士)를 만나 솔잎먹는 법을 배웠다. 그의 몸에는 털이 나고, 백70여년 뒤에도 목격됐다는

얘기가 '열선전(列仙傳)'이라는 책에 나와있다. 임진왜란때 경상도의 병장 곽재우(郭再祐)는 왜병들의 간담을 서늘케한 명장이었다. 왜란이 끝난 뒤 그는 산에 들어가 곡식을 먹지않고 솔잎과 송진만을 먹었다 한다. 몇달이 지나도록 곡식을 먹은 것이라곤 몇되도 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이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 사이비과학 추방돼야

곡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은 신선도에서 '벽곡(또는 絶穀·斷穀)'이라고 하는 수도법이다. "기(氣)를 먹는 자는 정신이 밝아 오래 살고, 곡식을 먹는 자는 지혜롭지만 일찍 죽고, 먹지않는 자는 불사(不死)여서 신(神)하다"는 것이다. (회남자). 신선은 곡식대신 과일이나 갖가지 영험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 솔잎이나 소나무씨 또는 송진도 그중의 하나다.

몸을 보하고, 불로장생의 효험을 지닌 선약(仙藥)은 광물에서 식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72명의 선인(仙人)얘기를 모은 '열선전'에는 모두 35종에 이르는 선약재가 등장하고 있다. 운모(雲母)·종유석같은 광물에서 소나무씨·송진·솔잎·감초·깨·부자·복령같은 식물성에 이르고 있다.

신선술을 집대성한 '포박자'에도 40종이 넘는 선약재가 소개돼 있다. 황화수은(HgS)인 단사, 황금, 백금, 옥(玉), 운모, 진주, 석영같은 광물질이나, 송진, 복령, 맥문동, 황련, 닥나무 열매, 삼씨(麻子)같은 식물성 선약재도 있다.

원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의학은 신선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불로장

생의 약재가 보약이나 병을 고치는 약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삼국시대 백제에는 독자적인 의약서인 '신집방(新集方)'이라는 책이 있었다. 고려의 18대 임금 의종(毅宗)은 목청전(穆淸殿)의 별실(別室)에 "좋은 약을 쌓아두고, 선구보(善救寶)라는 현판을 달았다"고 했다(1156년). "좋은 약"이란 몸을 보하는 신비의 영약(靈藥)이었을 것이다.

또 학자·지식인들은 학문적 교양으로 의학이론을 연구했다. 고려 말의 유학자로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鄭道傳)은 '진맥도결(軫脈圖訣)'이라는 책을 썼다.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正祖, 재위 1777~1880)는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는 의서(醫書)를 지었다. "백성을 오래 살게하는 묘한 법칙"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정도전이나 정조나 유학자의 교양으로써 의학이론을 연구했었다. 그래서 정조는 병을 고치는 약의 처방은 쓰지않았다. 유학자다운 한계를 지킨 것이다. 그 대신 어의(御醫) 강명길(康命吉)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신선도의 전통은 유교·불교에 못지않게 뿌리깊다. 이제 밥술이나 먹게됐다고 교양인으로서의 품격은 팽개치고 너도나도 몸보신 뽀박질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요, 이들은 그 신도들이다. 또 의사(擬似)과학이 아니라 사이비과학이다. 우리 사회와 문화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신흥종교 집단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